

금남로에서



김우성 논설실장

일방통행이다. 우리가 현실이 되고 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이다. 박근혜 정부를 바라보는 대다수 국민의 반응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개월이 다 돼지만 내각 구성이 지연되면서 곳곳에서 국정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협상이 늑장 타결된 탓이다.

‘에스’는 먹기 좋은 독약

꼭질 끝에 타결은 됐지만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은 ‘네 탓’ 공방을 하며 생체기를 난타라 향후 흐름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까지 발표하며 야당을 압박했고, 야당은 입법부를 시너화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러다간 국민행복시대는 고사하고 이명박 정부 때의 훗날시위, 노무현 정부 때의 대통령 탄핵 등 나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은펜클럽



강대석 시인·행정학 박사

‘무자식 상팔자’는 지난 일요일에 종영된 모 증권방송의 주말 연속극의 이름이다. 드라마의 내용은 광범한 노부부를 중심으로 아들 삼형제 가족이 가까운 이웃에 모여 살면서 하루도 바랄 잘 날이 없는 일상 속에서 아웅다웅 서로 다투고 화해하며, 이해와 소통을 통해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해 나간다는 가족드라마였다. ‘무자식 상팔자’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 주었다. 노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큰아들

기고



고광삼 뉴스1 광주전남지사장·광주시배구협회장

‘피겨여왕’ 김연아의 경기는 스포츠를 뛰어 넘어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다. 팔색조의 매력을 한껏 선보이며 펼치는 스텝과 안무, 표정연기는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지난 17일(한국시각) 캐나다에서 열린 ‘2013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18.31점의 놀라운 성적으로 4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김연아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경이적인 능력을 과시했다. 김연아가 세계선수권대회 정상을 탈환한 것은 2009 로스앤젤레스 대회 이후 4년 만이며, 2006년 시니어 데뷔 이래 15번째 국제대회 우

복잡한 전철·버스에선 배낭 앞으로 돌려 맴시다

요즘 유치원생도 스마트폰 들고다니는 세상이다. 그런데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늘 걸 절감하는 것은 복잡한 bus와 전철 안에서의 일이다. 핸드폰에 너무 심취해 문자를 날리는 등의 일을 하면서 걷다가 전파대에 부딪히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적잖았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나온 뒤로

‘소통 결핍’ 대통령, ‘에스맨’ 참모

우려만 커지고 있다. 이런 국정 차질과 정책혼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한마디로 ‘소통 결핍 대통령, 에스맨(yes man) 참모 현상’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이다. 대통령은 내가 옳으니 믿고 따라오라는 일방통행식이고, 참모들은 대통령의 독선과 그릇된 판단에 제동을 걸어줘야 하는데 웬일인지 ‘에스’로만 일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인자를 만든 참모들은 ‘노맨(no man)’ 역할을 주저하지 않았다. 루즈 벨트가 미국을 대공황에서 건져내고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우라는 훌륭한 참모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우는 보스의 지시에 잘못이 있으면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결국 대통령과 국민간 소통을 원활하게 해 허심탄회한 여론수렴의 자양분이 됐다. 박 대통령 주변에는 이런 참모가 없다. 인수위 시절 밀봉인사, 성시경(성균관대, 고시, 경기고 출신) 내각 등 편향된 인사로 비난을 살 때는 물론 성급한 답화 발표 때도 참모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오히려 지지도 전에 긴급 브리핑을 하기에 바빴다. 오죽했으면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 비서관부터 통제하라”고 주문했겠는가. 여기에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는 더 큰 문제다. 이는 답화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대통령은 대내외 위기 상황임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미래창조부의 ICT산업 육성을 신념이라고 강조하면서 원단 고수로 압박했다.

하지만, 답화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을 뿐 아니라 드러낸 문제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위기 대응방식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 부족, 자신만이 절대선이라는 위험한 사고방식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헛배’만 부르게 한 호남공약

정부조직법은 여야협상을 통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사안인데다 협상 막바지 단계였음에도 대통령이 나서 상황을 꼬이게 했다. 민주주의는 여야간 충돌이 있게 마련이며, 이런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다. 그럼에도 여당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야당을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우를 범했다. 또한 신념 운운하며 불통의 독선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렇지 않아도 박 대통령은 인수위에 이어 조각 및 청와대 비서진 인선에서도 소통 부재에 대해 비난을 샀다. 첫 국무총리 후보자가 결격사유로 그만둘 때도 “뭐가 문제냐”며 불잡았다고 하니 온도차가 커도 너무 크다. 술한 질타를 받아온 윤창중 대변인을 기어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할 것은 무엇이고,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청와대 비서

관의 면면을 발표하지 않다가 뒤늦게 발표 한 것은 또 뛰어난 말인가.

호남 관련 공약도 불거짐이 되면서 ‘말 잔치’에 그쳤다. 후보 시절 수차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해놓고 ‘헛배’만 부르게 한 셈이다. 첫 장관 인선은 말할 것도 없고, 17명의 외청장 인사도 영남이 9명인데 반해 호남은 2명에 불과했다. 대타령을 강조했던 게 무색할 정도다.

더욱이 서울 출신인 검찰총장에 대해 선산이 전북이라는 이유로 호남 안배로 보달라고 했더니 소가 웃을 일이다. 항간에 인사에서는 어쩔 수 없고 지역정책에서 배려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 모양이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한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정책·예산에서 배려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호남의 유일 참주이자,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정현 정무수석이 과연 참모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대체로 시원치 않다. 역대 대통령의 집권 초 지지율과 비교해 봐도 20~30%p 뒤처진다. 그것은 대통령의 일방통행에 국민의 마음이 점차 멀어져가는 탓일 게다. 이제라도 박 대통령은 ‘참모의 에스는 먹기 좋은 독약’이요, 불통의 이미지는로는 대통령이나 100% 대한민국을 결코 이룰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무자식 상팔자’와 인생 100세 시대

내외의 효성, 가슴 정한 삼형제의 우애, 그들 형제의 은퇴 후의 무료한 생활, 미혼모가 되어 아이를 홀로 키우는 딸 등 이 시대 우리 가정들이 안고 있을 법한 문제들을 다양하게 보여준 재미와 감동의 드라마였다. 특히 이 드라마에서 필자의 눈길을 끈 것은, 직장에서 은퇴한 후 경제권을 아내한테 빼앗기고 힘없이 사는 둘째 아들(송승환 분)의 삶이었다. 대기업 상무로 잘나간 직장에서 조기 은퇴한 후 아내의 눈치를 보며,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하나도 못 사먹고 사는 힘없는 백수의 모습이었다. 자기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이지만 아내에게 다 맡기고, 정작 아내의 눈치를 보며 사는 모습이 예사로 보이기 않았다. 그것이 곧 요즘 은퇴자들의 자화상이기 때문이다. 이제 사회는 평균 기대수명 80세를 넘어, 인생 100세 시대에 돌입했다.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은 그만큼 자식들과의 마주할 시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삼강

오훈의 유교적 전통이 살아있어 노부모 봉양이 자식의 도리이고 효의 상징이었지만, 이젠 그러한 전통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물질 만능의 풍조 속에서 이기적이고 각박한 세상이 되어 ‘무자식 상팔자’에서의 할아버지처럼 노후에도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큰소리치며 살고, 자식들 또한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며 효도를 한다. 자녀들에 대한 가정교육과 잔소리도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어느 유명강사의 은퇴 관련 강의를 들으니 노후대비에 있어 가장 주의할 것이 ‘자식 리스크’라고 한다. 즉 남들이 한다고 덮어놓고 자식 교육에 올인 하다가 노후대비를 못하는 경우가 은퇴자의 60%가 넘는다고 했다. 은퇴 이후 30년이 넘게 살려면 수억 원이 필요하지만 자식들을 결혼 시키고 원빈민손이 된다면서, 너무 자식들에게 올인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자식들 믿지 말고 교육비와 결혼비용을 아껴 연금이라도 들어 놓

으라는 것이다. 듣고 보니 백번 맞는 이야기였지만, 한편으론 자식들이 리스크의 대상이라는 것과 자식들 믿지 말라는 말이 마음 한편을 무겁게 했다. 요즘 날씨가 풀리자 주말이 아닌데도 산을 찾는 오락실 대들이 부쩍 눈에 많이 띈다. 아마도 베이비붐 세대의 조기 퇴직이 본격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아직 젊은 그들이 일자리 현장에서 물러나 산을 찾는 모습이 어처구니없게 보인다. 그들이 새롭게 인생 2모작을 시작하여, 인생 100세 시대에 기죽지 않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에게 일자리는 소득, 건강, 여가선용, 가정의 평화 등 그야말로 1석 4조 이상의 효과가 큰 복지정책이기 때문이다.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社說

광주·전남 자동차 130만대, 교통사고는 1위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첫 선을 보인지 올해로 110주년, 자동차 대수는 2000만대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지난해 기준으로 광주는 55만821대, 전남은 76만6704대로 131만7525대에 달한다. 이는 지난 1986년 광주 3만대, 전남 4만대 등 7만대와 비교할 경우 27년 만에 무려 19배가 늘어난 것이다. 과속과 끼어들기,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은 예사이고, 보행자의 무단횡단도 비일비재하다. 외지인들이 가장 운전하기 무서운 지역으로 꼽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자동차 운전면허 제도 역시 올해로 100주년을 맞으면서 전국적으로 면허증 소지자는 2826만3000명에 이른다. 이 중 광주지역 소지자는 남성 47만3115명, 여성 34만6890명으로 인구 145만 명 가운데 57%에 해당된다. 전남은 남성 85만4301명, 여성 39만4398명으로 인구 195만 명 중 64%를 차지한다. 특히 광주 자동차산업은 지역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1966년 아시아자동차공업으로 광주에 동지 트리트4로 승용차를 생산 개시했다.

1998년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하면서 차량 생산의 다변화와 수출 급증으로 연 50만대 생산에, 지난해 광주 총수출액 중 35%에 달했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자동차에 관한 한 여러가지 불명예를 안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인구 당 교통사고 발생률 전국 1위, 사망사고 1위, 음주사고 1위 등 ‘3관왕’의 오명을 쓰고 있다. 과속과 끼어들기,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은 예사이고, 보행자의 무단횡단도 비일비재하다. 외지인들이 가장 운전하기 무서운 지역으로 꼽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자동차 운전면허 제도 역시 올해로 100주년을 맞으면서 전국적으로 면허증 소지자는 2826만3000명에 이른다. 이 중 광주지역 소지자는 남성 47만3115명, 여성 34만6890명으로 인구 145만 명 가운데 57%에 해당된다. 전남은 남성 85만4301명, 여성 39만4398명으로 인구 195만 명 중 64%를 차지한다. 특히 광주 자동차산업은 지역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1966년 아시아자동차공업으로 광주에 동지 트리트4로 승용차를 생산 개시했다.

경영난 대불산단 고용특구 지정 시급하다

각계에서 건의 중인 대불산단의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최대 조선기자재 집적단지인 대불산단 내 조선부품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1월 경남 통영시를 고용특구로 지정하고서도 대불산단만 외면하는 것은 행정성 차원에서 차별이 아닐 수 없다. 대불산단은 입주업체의 75%가 선박 관련 업체로, 국내 조선업계에 핵심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과 국내 경기 침체로 산단 내 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대불산단 대표기업인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6000억 원 줄었고, 수출물량도 57%나 감소했다. 또 지난해 14개 업체가 휴·폐업하는 등 대부분의 업체들이 불황의 늪에 허덕이고 있으며, 조선업 종사자 1만1000여 명 가운데 8000명이 하청업체 근로자일 정도로 고용이 불안하다.

이런 심각한 현실에 따라 전남도와 도의회 등 관련 기관들이 대불산단의 고용특구 지정을 자식 건의했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지난 13일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했고, 전남도 역시 지난달 고용특구 지정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고용특구로 지정되면 사업주가 지급하던 휴업수당, 유급휴직수당 등을 정부가 지원함은 물론 1명당 1일 5만원 이내의 고용유지지원금도 지원한다. 그만큼 내 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고용특구 지정 기준은 1개 시·군·구를 기본 단위로 하고 있어 목표와 영암 등 2개 시·군에 걸쳐 있는 대불산단의 경우 조선업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조선업이 기간산업이라는 점을 유념해 기준을 변경해서라도 대불산단의 고용특구 지정을 조속히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중국 서진(西晉) 시대의 대부호 석송(石崇)은 황제와 겨워도 밀리지 않을 만큼 엄청난 부를 쌓아올렸다. 관리로서 백성의 고혈을 쥐어짜는데 그치지 않고 강도까지까지 해낸 결과다. 석송은 값비싼 양초를 팔나무 삼아 밥을 짓는 게 하면, 귀한 자색 비단으로 짠 앞줄 양쪽에 50리나 되는 병풍을 만들어 세우는 등 온갖 사치를 부려 세상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지게 만들었다.

맹룡과강



반면, 현대그림을 창업한 고 정주영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음에도 구두가 닳는 것을 막으려고 굵에 짐을 박아 신고 다녔다. 똑같은 디자인의 구두 세 켤레를 굵을 갈아가며 30년이 넘게 신었다. 맹룡과강(猛龍過江)이라고 했다. 사나운 용만이 강을 건널 용기를 낼 수 있다는 얘긴데, 진정한 근검은 돈이나 권력에 기대지 않고서도 자신감과 긍지를 지닐 수 있는 사람만이 실천 가능한 일일 것이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런 사람이라면, 국민은 행복할 것이다. /홍행기 사회1팀장 redplan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광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대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손에 가방을 들고 있을 경우 두 손을 사용하기 어렵자 아예 배낭을 메고 탑승해서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것이다. 배낭을 메면 그걸 손으로 들 일이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조작이 쉽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배낭이 만원 전철과 버스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큰 불편을 준다는 사실이다.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밀려드는데 뒤에서 배불뚝이처럼 불룩 튀어나온 배낭 때문에 한 사람이 더 탈 공간을 뺏기는 물론, 자리를 옮겨 다른 데로 가기도 어렵고, 만원

일 때 밀리다가 배낭 앞에 걸리면 허리든 등이든 거기에 찢려 무척 불편하고 아프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등 뒤에 메고 있던 큰 가방을 앞으로 옮기거나, 바로 위 선반에 올려놓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벌거 아닌 듯 보이는 일,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조금만 줄이면 모든 사람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배낭족분들 신중 좀 써주면 좋겠다. ▲강석훈·광주시 남구 주월동